

한국 낙농육우농가들의 자세



황민영

농어민신문사 사장

21세기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세기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면, 상상컨대, 오는 21세기는 20세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가 예상되고, “원숭이 복제”, “면양 복제”에서 보듯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다 해낼수 있는 세기가 될 것이란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그러한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갖가지 정책들이 『빅뱅』이란 용어에 걸맞게 파격적으로 구상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화가 강요되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 철저하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말이 구조개선, 개혁이고 조정이지 파괴나 다름없다.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한때 농가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1호요, 부의 상징이었던 한우가격이 수입쇠고기의 가격과 괴 앞에 『빅뱅』을 당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에 떨고 있던 낙농산업을 강타하고 있다. 낙농경영 합리화에 한몫을 톡톡히 해주던 젓소 송아지 특히, 숫놈이 개값이 되고 노폐우처리하는 더욱 걱정되는 낙농현실이다.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예상하여 젓소개량, 초지조성,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를 위한 낙농진흥법개정, 낙농전문협동조합건설 등등 낙농현안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UR/WTO/OECD가입 등 일련의 위기상황이 낙농인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는 현

실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도 초보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타깝다.

일차적으로 세계화 되어 있는 이 나라 낙농산업의 위기상황에 대한 낙농가들의 정확한 인식과 자기변신없이는 공멸이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나만의 생각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낙농현실이다.

WTO이후 급변하는 국제낙농선진국 낙농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보조와 수출보조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UR협상에 따라 앞으로 GATT 가맹국 등은 모든 비과세 조치의 관세화, 그리고 관세는 농산물 전체평균 36%, 단일품목으로는 최소 15%까지 6년('95-2000)에 걸쳐 삭감하고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금액기준으로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①

36%, 물량기준으로 21% 삭감토록 되어 있으며 국내보조도 20%를 삭감토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UR협상결과로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에 의해 유지, 발전되어 세계낙농수출을 주도하던 EU 낙농국들도 감산이 불가피할 것이고, 때문에 앞으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우유수요는 초과할 것이 예상된다. 호주의 농업자원경제국 분석에 따르면, 『기준년도에 비해 1999년의 유제품 가격은 버터 18%, 치즈 23%, 분유 19% 각각 상승할것』이라는 예측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EU는 보조금 삭감 등에 의해 2000년까지 약 10만톤의 수입증가가 예상되고, 보조금에 의한 수출은 약8만톤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을 우리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급형 낙농을 전개해 왔으나 1991년 이후 유제품수출보조정책에 의거 탈지분유와 버터 중심으로 1994년 17만톤을 수출하였지만, UR협상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낙농이 수출낙농으로 구조전환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정책과 수출동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EU에 이어 유제품 수출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호주는 아직 전세계 원유생산량의 3.5%에 불과하여 2000년까지 기대되는 새로운 시장확대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낙농제품의 수출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지만, 뉴질랜드의

21세기를 앞두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갖가지 정책들이 '빅뱅'이란 용어에 걸맞게 파격적으로
구상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화가 강요되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 철저하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말이 구조개선, 개혁이고 조정이지 파괴나 다름없다.
소리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경우 전세계 유제품 무역량의 20%를 점하고 있고, 국내 원유생산량의 95%를 수출하고 있는 정황으로 미루어 여전히 수출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더욱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수출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은 국가라는 사실이다.

생산자 유기수준이 세계적으로 높게 유지돼온 일본의 낙농개혁의 방향을 보면, 2000년 이후 관세인하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을 전제로 구조개편을 단행하면서, 그 중점을 신선도 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시유의 비율확대, 고품유제품으로부터 액상유제품(발효유, 생크림, 액상치즈, 소프트 드링크 용 원료유등)으로의 이행, 수요증가가 현저한 자연치즈에 대해서는 관세 할당제도 및 장려금제도를 이용한 국산치즈의 진흥, 생산자 단체에 의한 『2중가격, 2단계 할당제』등의 실시를 통한 수입대체를 정책화 하고 있다.

이런 국제낙농의 동향을 볼 때 결국 낙농산업은 생산비의 높고, 낮음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에 있어서 낙농가의 계층이 급속하게 분해되어 궁극적으로는 대규모 경영이 일반화될 것이고, 당분간 낙농구조개편과 수출시장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란 사실이다.

개방하의 한국낙농의 현실

이제 우유와 유제품은 완전개방되었다.

쇠고기는 오는 2001년 완전개방되지만 이미 민간업자들이 수입쿼터물량의 50%를 들여오고 있어 완전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21세기 한국낙농, 육우산업은 기본적으로 완전경쟁의 원칙에서 대책이 검토되고,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없다. 물론 UR협상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정책이 뒤 따를 수 있지만 그것은 완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①

경쟁조건하에서 경쟁력이 될수 없다. WTO출범은 본격적 구조개편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낙농의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라는 긍정적 사고에서 일단은 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낙농은 자연의 제약을 받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진농업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고, 천혜의 유리한 자연조건도 중요하지만, 21세기 낙농산업은 기술, 제도, 정책,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사실이다.

한국낙농의 장기전망에서 축협중앙회는 젖소사육두수는 1996년 56만두에서 2004년에 58만두, 1인당우유소비량을 50.4kg에서 64.2kg, 우유총소비량을 2백 28만톤에서 2004년에는 3백9만1천톤으로 예상하면서, 이렇게 될때, 수입을 1996년 22만 4천톤에서 2004년에는 77만 3천톤, 그래서 자급율을 91%에서 75%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낙농의 미래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척도인 우유수입량이 2004년 77만3천톤으로 추정할때, 1995년 수입량 10만5천9백톤은 아직 수입의 서막에 불과함을 알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유, 유제품이 수입될 것이란 사실이다.

이런 UR협상 결과에 따른 우유의 수급동향에 따라,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오던 우리의 젖소사육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사육농가도 2만1천1백호로 나타났다. 사육농가의 감소가 1990~1995년간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4천7백여

호가 감소, 전국감소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강원도는 증가했으며, 이 기간중 농가당 사육규모는 15두에서 24두로 증가했지만 20~29두 사육규모 이하는 탈락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낙농이 수도권 소비지 중심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이 지역의 빠른 도시화와 지가상승으로 목장지의 타용도 전환, 낙농기피 현상, 환경오염에 대한 단속 등 낙농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낙농의 포기 탈락, 이전 등으로 변모되고 있다.

21세기 한국낙농의 대안은 무엇인가

1996년 「우유위생논쟁」을 계기로 한국낙농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된 바 있다.

그 골자는

① 낙농진흥법의 개정이다.

이 법에서 낙농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집유일원화, 검사공영화, 그리고 수급조절, 가격결정, 분쟁조정 제도연구, 국제여건변화에 신속한 대응 등 모든 정책사항들을 의결, 집행한다.

② 원유에 대한 검사공영화를 통하여 원유 및 유제품에 잔류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과 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③ 유질향상을 위해 체세포 등급제 실시, 성분적 유질에 따라 등급간 가격차등제 실시로 유질개선을 꾀한다.

④ 용도별 차등가격제 실시로 가공용 원유의 가격 조정으로 악성

분유재고로 개선한다.

⑤ 신선우유소비 촉진을 위하여 자조금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2월 낙농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낙농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항은 이미 우리 낙농을 공격해 오고 있는 선진낙농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낙농현장, 낙농가에서 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제도, 법률, 정책에 이르기까지 낙농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금과옥조로 지켜지고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들이 십수년전부터 주장, 건의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생산자, 가공업체, 소비자들도 동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낙진법은 국회에 계류중이고 자조금도 제자리 걸음이다. 낙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면할수는 없지만 그 보다 책임이 큰 집단은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들이다.

특히 축협중앙회와 일부 지역축협이나 낙협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행태야말로 낙농산업의 기본인 낙농가의 입장이 우선시 되지 않은 채 조직 및 개인이기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 여기에 정치꾼들의 선거운리까지 개입되어 낙농을 망치고 있다. 생산자 조합원 본위의 협동조합이 정당한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은 반낙농적 작태로 치부받아 마땅하다. 이런 현상을 바로 잡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①

지 못하고 낙진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아직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갈길 바쁜 한국낙농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낙농은 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이 매우 낮다. 그것은 생산측면에서 낮고, 경영에서 낮고, 기술도 낮고 가공, 유통도 낮은 수준임을 인정해야 한다. 정책 지원, 소비자들의 유제품 소비의식도 형편없다.

그동안 정부의 일정한 보호아래 낙농산업이 성장해 왔지만, 낙농의 기본인 조사료기반이 허약하여 농후사료에 의존하고, 무분별한 축산폐수단속과 인력난 등 낙농여건악화로 호당사육규모가 크게늘지 않고 있으며, 시설도 이제 투자단계인데 낙농전망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주춤하고 있고, 축산환경은 더욱 취약하다.

낙농의 유통도 낙농가 위주가 아닌 가공업자의 이익에 입각하여 주도되어 왔으며, 가공산업은 이제 국내산 우유가 아닌 값싼 수입우유제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위생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낮다. 이제 낙농제품수입의 가속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으로 고착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낙농개혁을 서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인의 자세

그러면 한국낙농육우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인은 2만여명의 낙농인이요, 그 조직들이다. 어디를 가나 다양



한 낙우회가 있고, 그리고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있으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을 비롯한 낙농협동조합이 있다. 바로 이들이 한국낙농의 책임집단이요, 주체세력이다.

21세기 한국낙농은 낙농인들의 자구조직인 협동조합이 주도해 나갈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익본위의 유기공기업은 수입가공과 수입 판매로 발 빠르게 경영전략을 선회하고, 시간의 문제이지 낙농인들의 결을 떠날 것이며 결국 협동조합만이 낙농인, 조합원들의 앞장에 설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낙농협동조합의 현실은 어떤가.

서울우유가 5천명 조합원, 연매출 6천억원으로 전체 우유시장의 30%를 점유하면서 성장하고 있을 뿐 다른 협동조합들은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생산자 협동조합의 취약성은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낙농가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원인도 규명되고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

그동안 낙농인들은 초보적 단계인, 낙우회를 조직하여 생산, 경영에 임했고, 대부분 낙농가들도 집유, 검사를 일반유업체에 방임한채 『호황아닌 호황』의 시절을 보내지 않았는가. 낙농세계화에 대비하여 어떤 내용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것도 개인이 아닌 협동과 조직면에서 말이다. 이제 어리숙한 낙농가들을 『등쳐』 성장을 구가하던 일반유업체가 낙농가들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어쩔 것인가.

민족을 노래하고 생산자를 위한 다던, 이 나라 우유산업을 책임질 듯이 떠들어 대고 있는 P.유업체가 납유 쿠퍼제를 실시하려 하자, 낙농가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어쩔 것인가. 칼자루의 주인이 칼자루를 내준 낙농현실에서 말이다.

21세기 한국 낙농의 미래를 구상하는 낙농인 여러분, 낙농업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차체에 그만둘 생각이십니까? 이 것은 누가 아

21세기 대비, 낙농육우산업발전을 위한 2가지 과제 ①

닌 본인의 선택문제이다. 그만 두려는 사람에게서는 미래가 있을 수 없고 묘안이 떠오르지 않고, 낙농 현안을 돌파해 내는 힘이 있을 수도 없다.

21세기 한국 낙농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낙농산업관련 모든 분야의 총체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지만 당사자는 낙농인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낙농인들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첫째, 개방화, 전환기의 낙농인들은 위기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함께 낙농산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낙농은 한나라의 산업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는 당위론과 낙농업도 다른 직에 비해 손색이 없고,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힘이 있을 수 있고 방책도 찾아질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전문화시대에 알맞는 생산기술, 경영능력이 있어야 한다. 산업으로서 일차적 존립근거는 경쟁력이다. 경쟁력은 모든 생산조건 중 종합적 산물이라고 생각할 때 기술과 경영에서 우위성을 확보해야한다. 특히 낙농의 규모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마케팅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시점에서 전문능력의 보유여부는 선진낙농인들의 필수조건이다.

셋째,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개인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될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협동의 원리, 조직의 원리에 대한 유리성을 철저히 인식해야한다.

21세기 한국 낙농의 미래를
구상하는 낙농인 여러분, 낙농업을
계속하실 것입니까?

차제에 그만둘 생각이십니까?

이 것은 누가 아닌 본인의 선택문제이다.

21세기 한국 낙농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낙농산업관련 모든 분야의 총체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지만 당사자는 낙농인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낙농인들의 자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조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지혜와 자세가 필요하다. 낙농과 낙농인의 조직화를 통해 효율성을 추구해서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여기에 전문협동조합의 건설, 협동조합간의 협동, 그리고 낙우회와 같은 현재의 초보적인 활동도 보다 본질적인 사업영역에 접근해야 되고 강력한 조직이 되도록 참여해야 한다. 낙농의 가공, 유통 등 경제 활동과 정책건의 등 정치활동의 영역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치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개방화시대,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보다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신선우유의 품질과 위생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날 고름이니, 발암이니하는 어처구니없는 수모를 당해왔다. 앞으로 더

욱 품질과 위생, 안전성이 소비자가 하늘인 시대에 중요시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점에서 어느 수준인가 가늠해 보고, 다양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매가 마케팅시대의 선진낙농에 걸맞게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이 나와야 하고, 특히 홍보전략이 보다 세밀하게 수립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이제 낙농이 단순한 업이 아닌 산업의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낙농의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의 낙농은 환골탈퇴 시켜야 한다. 누가 시킬것인가 낙농인들이 주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농인들이 판을 새로 짜는 마음으로 자신부터 탈퇴해야 다른 부문, 분야도 환골시킬 수 있다. ⊕

(필자연락처:02-547-2254)